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전주시 민성동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전북도 주요 현안과 국민연금공단 일반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사진은 송하진 도지사,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 당선인 “전북 현안 각별히 챙길 것”

국민연금 글로벌기금관 찾아 도정 현안·공단 현황 청취
송하진 도지사, 금융중심지 지정·새만금 사업 등 건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20일 전주 민성동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전북도 주요 현안에 청취하고 국민연금공단 일반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국민연금공단의 일반 현황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후, 전북도의 도정 현안 보고와 토의, 금융중심지 지정 희망 조망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글로벌기금관 1층 로비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현황 및 향후 운용방향 등 국민연금공단의 브리핑을 청취했으며, 브리핑 이후 회의실에서 윤 당선인과 전북도정 현안 청취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모두 발언에서 “입장중 첫 번째 정책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공군 기로 새만금 일대를 다시 한번 돌아봤다고 하며, “새만금은 세계 어디보

다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 새만금 개발과 함께 전라북도를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 벌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보자”고 강조했다. 이어, 송하진 도지사는 대통령 당선인이 새정부 국정 구상으로 바뀐 외중에도 전북을 방문해 준 것과 지방의 시대를 약속한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공단의 조기 착공, 새만금 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과 국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요청했다. 또한 금융 생태계를 갖춰가고 있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 타운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기금 운용 본부의 시너지 낼 수 있는 금융 공공 기관의 전북 이전을 건의했다. 이어, 직선 구간 확보가 가능한 새만금에 하이퍼튜브 테스트 베드 구축, 군산항 7 부두를 활용한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호남과 영남을 아우를 수 있는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 훈련원의 남원 건립,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태권도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무주 태권도 일 부지에 설립해줄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통과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먼저, “전북은 기금운용본부가 자리잡고 있고, 외국계 투자은행, 증권회사 등 투자운영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투자운영 생태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도 규제를 많이 풀어, 고소득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데 큰 기능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여러분과 함께 멋진 전북을 만들어 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토의 시간에 새만금세계잡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 부처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시에 줄 것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마무리 발언에서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개발을 임기중에 빨리 마무리 짓고 고도화된 첨단산업시설 및 스마트농업 등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전주완주 혁신도시 전체가 보이는 글로벌기금관 9층 옥상정원으로 이동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과 전북도의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줄 것과 자산운용 관련 기관의 추가 이전,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을 재차 건의했고,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잠재력이 큰 땅이라며 관심을 표명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대통령 당선인 방문을 계기로 대통령 지역 공약에 전북의 주요 현안 반영 등 새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일상회복 전환 '지름길'

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신원식 정무부지사, 해수부 등 찾아 전북 핵심사업 반영 건의

전북도가 대내외적인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방향키를 꼭 부여잡으며,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신원식 도 정무부지사는 20일 해수부와 농식품부를 방문해 전북도 주요 핵심사업의 예산 반영 건의와 함께,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다. 신 부지사는 먼저 해수부 항만국장을 찾아 사업의 시급성과 적기 구축 필요성을 설득하며, ‘군산항 제2준설로 부기장 건설’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 사업의 국비 반영을 협조 요청했다. ‘군산항 제2준설로 부기장 건설’은 지난해 11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예타 진행 중으로 군산해수청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올해 상반기 예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현 부기장(금란도)이 이미 포화상태로 2025년에는 수토 능력이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적기 구축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하다. 신 부지사는 내년도 예산 반영을 협조 요청했다. 이어, 윤 당선인 전북공약인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조기 구축 이행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건설 조기 완료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에도 대규모 국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밖에도 해양레저 수요 증가, 낚시

어선 급증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어선 수용률 개선을 위해 비응항 접안시설 확장이 시급함을 설명하며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 사업의 신속한 항만기본계획 반영과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신 부지사는 이어, 농식품부에서는 당선인 공약연계 사업인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국정과제 반영과 함께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종자산업은 농업의 반도체로 미래 식량 수급과 지속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육성이 요구된다”며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국정과제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기관 집적화 등 관련 산업기반이 잘 구축된 전북에 조성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우선 김제공항부지의 신속한 관리전환(국토부→농식품부)을 요청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정읍에 구축된 농축산용미생물 산업을 고도화하고, 관련 기업 집적화를 위해 공정한 개별 입주 공간과 장비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사업의 국비 반영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기 마무리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예산안에 기반 및 실시계획 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유호상 기자

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10년 연속 '우수'

인센티브 3억1500만원 받아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의 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10년 연속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목표대비실적(신속집행, 소비·투자 집행), 광역·기초 협력도, 일자리사업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도는 재정인센티브로 3억1,500만원(시·군포함)을

받게 됐으며, 그동안 확보한 재정인센티브는 30억원에 달한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철근 관급자재 조달 애로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상액 9조5,034억원 중 9조1,561억원(96.34%)을 집행해 전국 평균 집행률 88.33%보다 7%p 높은 실적을 기록,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로 도 뿐만 아니라 남원시, 진안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각 8,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번에 확보된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는 전액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활용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2022년 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선정

GUNSAN CITY

고군산군도